

동서양 고전의 진수를 만나다

전남대박물관 문화강좌 개설
박구용·이주향 교수 등 초청
20일 오전 10시 선착순 접수



시대를 초월해 변함없이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니는 책을 고전이라 한다.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성찰은 고전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전남대학교 박물관이 전남대 선정 고전 100선을 바탕으로 구성된 2018학년도 2학기 문화강좌 '고전에 비추어보다 II'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고전 시리즈로 역사·철학·문학·과학·정신분석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전을 놓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다. 강좌는 9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며 강의 후에는 주제와 관련된 영화나 역사·문화 다큐멘터리 상영이 예정돼 있다. 첫 번째 강좌는 9월 2일 이강래 전남대 사학과 교수의 '한국 고대를 여는 창, 삼국사기'를 강의로 2학기 문을 연다. 강의 후 KBS 역사스페셜 다큐 '김부식은 왜 삼국사기를 썼나?'를 시청한다. 이주향 수원대 교양대학 교수는 '지금 왜 명사록을 읽는가-아우렐리우스의 '명



박구용 교수 이주향 교수

상록'을 주제로 9월 19일 강의하며 영화 '인턴' 시점이 예정돼 있다. 10월 10일에는 이명현 과학저술가의 '우주의 신비로움에 매료되다-칼 세이건 '코스모스'가 펼쳐지며 다큐 '창백한 푸른 점'이 상영된다.

인도 관련 분야도 2차례나 예정돼 있다. 이재숙 한국외대 강의교수가 '상징과 은유의 성찰 :우파니샤드' (10월 17일)라는 주제로 고대 인도의 철학 경전에 대해 강의하며, 김우조 한국외대 인도어과 교수가 타고르의 시를 다룬 '타고르 기만장리' (12월24일)에 대해 강의한다. 각각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블랙' 상영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중국의 경전과 시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강의도 펼쳐진다. 배병삼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 (10월24일)를 강의하며 영화 '공자'를 수강생들과 시청한다. 또한 신하운 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는 '중국 시의 최고봉, 唐詩-이백과 두보를 중심으로' (11월 14일)를 강의하며 이후 다큐 '당시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唐詩)의 길'을 본다. 최운찬 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국 근대사의 대서사, 박경리 토지-토지를 읽는 방법' (10월 31일·다큐 '내 어머니, 박경리')을 주제로 강의한다. 세계적인 석학과 심리학자, 베스트셀러 작가의 저서를 함께 읽는 시간도 계획돼 있다. 김서형 러시아 박히스토리 유라시아센터 교수는 11월7일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를 강의하고 김석 건국대 융합인재학부 교수 '프로이트, 꿈의 해석' (11월 21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후 각각 다큐 '지구는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는가'와 '무의식에 새겨진 마음을 깨우다'를 볼 예정이다. 또한 박상진 부산외대

교양학부 교수는 '담테의 신곡' (11월 28일)을 강의하며 영화 '인페르노'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거룩한 공정을 품고 있는 예술작품-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2월 12일)를 시민들과 나누고 영화 '초인'을 볼 계획이다. 수강생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330명을 모집한다. 접수는 수강료 계좌입금(수강생 명의)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수강료는 일반 11만 원, 경로자(만 65세 이상)와 전남대 교직원 및 가족·대학원생은 9만 원. 문의 062-530-358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도문학벨트 구성을 위한 '전남순화문학포럼-섬진강권 포럼' 행사 장면. <광주전남작가회의 제공>

“남도문학 정신은 의리와 호국 정신”

지역문인 150여명 참석 '섬진강권 문학포럼' 성료

남도문학벨트 구성을 위한 전남순화문학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된 '섬진강권 문학포럼'이 성황리에 끝났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박관서)와 다도해문화예술교육원(대표 배경희)가 최근 곡성 섬진강변의 강빛마을 강당에서 개최한 문학포럼에는 지역문인들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조선시대 문학의 주류였던 호남문학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며 남도문학의 전통과 문학정신은 의리와 호국정신으로 집약되며, 이의 정점은 매천 황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금의 호남문학이 정체를 벗어나기 위해선 호남의 중세 한문학과 가사문학 등 전통적인 남도의 문학전통과 정신을 탐색해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재중 시인이 자신의 문학적 여

정을 통해 남도문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문학콘텐츠허브 개발 토론회에서는 박해강 작가가 '섬진강권 문학콘텐츠허브 개발을 위한 기반 모색'의 기조발표를 했다. 현재 도개비마을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김성범 동화작가는 문학콘텐츠허브를 개발하는 노하우와 진행상황을, 스토리텔링 등 문학콘텐츠허브를 다뤄온 전용호 작가는 광주전남을 횡단하는 문학답사코스 개발안을 발표했다. 한편 순화문학포럼은 전남의 문학권역을 섬진강권, 영산강권, 다도해권역으로 나눠 매달 한 곳씩 순회하면서 문학포럼을 진행하며 여기에서 의견이 모아진 문학콘텐츠허브는 남도의 문학현장에서 시험할 계획이다. 9월 영산강권 문학포럼, 10월에 다도해권 문학포럼이 예정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은봉 시인 '35년 詩歷' 3권에 담아

정년 앞두고 25일 출판기념회

8월 말 정년퇴임을 앞둔 이은봉 시인(광주대 문창과 교수)이 35년 시력을 결산하는 3권의 저서를 발간했다. 지난 1995년 광주대 문예창작과에 부임한 이은봉 시인은 지금까지 다수의 신진작가들을 배출하는 등 중앙과 지역문단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정년퇴임을 맞아 시선집 '초식동물의 피' 평론집 '시와 깨달음의 형식', 시인의 시세계를 다룬 연구서 '생명의 시 활기의 시' 등 세 권의 저서를 발간한 것. 시인은 1984년 '창작과비평' 신작 시집 '마침내 시인이여'를 통해 등단한 이후 역



이은봉 시인

을 지낸다.

시선집 '초식동물의 피' (시와사람)는 35년 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온 이 시인의 시세계가 집약돼 있다. 첫 시집 '좋은

사적 공동체의 식이방향을 둔 시와 생명의 근원을 탐구하는 작품을 발표해 왔다. 특히 이번 저서들은 시인의 35년 시력을 결산·재평가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 남다른 뜻을 지닌다.

평론집 '시와 깨달음의 형식' (서정시



세상'부터 최근 간행한 시집 '분청사기 파편들에 대한 단상'에 이르기까지 10권의 시집과 1권의 시집에서 126편을 골랐다. 표제작 '초식동물의 피'는 동식물은 물론 사물까지도 자신과 하나가 되는 화인상을 체화하고 있다. 평론집 '시와 깨달음의 형식' (서정시



학)은 이용악, 오장환, 서정주 등의 시세계와 시정신을 살펴본 글을 비롯해 작고 시인부터 현재 신진, 중진 시인들의 작품 세계, 다양한 시집 서평 등 총 35편이 실려 있다. 연구서 '생명의 시 활기의 시' (푸른사상)는 이 시인의 시세계를 탐구한 해설, 평론, 논문, 대담 등이 수록돼 있다. 이 시인의 시세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50편의 글과 대담 4편이 담겨 있으며 부록을 포함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한편 정년퇴임 출판기념회가 25일 오후 4시 5·18민중화운동기록관에서 개최된다. 문의 010-7165-9356, 010-5660-233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흥 '월정리 설화' 그림책으로 나왔다

'병어 공주와 빨간 실' 발간

고흥 월정리 설화가 '병어 공주와 대구 왕자'의 좌충우돌 혼담 소동으로 다시 탄생했다. '동개비'와 '꼬마 기차 추추' 등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한 작가 문진영씨가 남도설화를 바탕으로 한 그림책 '병어 공주와 빨간 실' (사진)을 펴냈다. 그림에는 김정환 작가가 참여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동서양의 옛이야기를 발굴해 그림책으로 재구성하는 '봄별'의 '새책그림책 시리즈' 중 하나로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의 대구 병어 혼담 설화를 다뤘다. 병어와 대구의 생김과 특성을 잘 포착해 익살과 해학이 버무려진 한편의 이야기



가 다. 병어 공주는 결혼이 예정된 대구 왕자가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다. 공주의 고민을 들은 장어 할머니는 왕자가 자는 동안 입을 조금 꿰매면 어떻게 냐고 조언한다. 이 책에서는 고된 삶을 웃음으로 이겨낸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엿볼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